



尹 탄핵 선고 임박... 도민들 “파면하라”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

구속 취소 따른 석방에 분노
“검찰총장 사퇴하라” 구호도
현재 선고 기일 임박에 따라
“탄핵 인용 결정 내려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5시, 거리로 나온 전북도민들이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주최하는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는 이날도 어김없이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 앞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모두 종료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이 남아 있는 만큼, 대회를 주최하는 본부는 이날 집회를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선고 기일 당일인 아니었으나, 이번 도민대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에 집회를 준비한 본부 측과 참가한 도민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거리위에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외쳤다.

거리로 모인 도민들은 예전과 같이 피켓을 들고 흥겨운 대중가요 위에 “내란수와 윤석열 파면”, “내란잔당 국무위원 사퇴”, “내란공범 국회의원(국민의힘) 해체” 등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따라부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국민이 심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에서 한 기수가 ‘국민이 심판하자’라는 글이 쓰여진 커다란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시민 제공〉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에 따른 석방에 대해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대검이 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항고하지 않은 대검을 향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탄핵 찬성 집회의 아이콘이 된 깃발 역시 수십개도 하를 위로 휘날렸다. 특히, ‘국민이 심판하자’라는 글이 쓰여진 커다란 깃발이 이날 집회에서 눈길을 끌었다.

도민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현재의 선고 기일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만큼, 모두 입을 모아 “어서 헌법재판소

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도민대회에서는 풍물패 공연,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전북녹색당 등 각 정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연설, 도내 시민단체 연설, 시민 발언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지난 8일 오전 10시, 전주신흥고등학교에서 106년 전 뜨거웠던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전주3·13 만세운동 재현행사’의 출정식이 열렸다.

독립운동 정신 계승 역사의 뿌리 되새기다

광복회 전주시지회, 전주 3·13만세운동 재현
참가 시민들, 신흥고에서 풍남문광장까지 행진

1919년 3월 13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 선조들의 함성이 106년이 지나 전주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광복회 전주시지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전주신흥고등학교에서 106년 전 뜨거웠던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전주3·13 만세운동 재현행사’의 출정식을 가졌다.

‘전주 3·13 만세운동’은 106년 전 1만여 명이 참여한 전북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으로, 서문교회 김인전 목사와 신흥학교·기전학교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개된 대규모 만세운동이다.

이날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행사에 참여한 유치원생부터 청소년, 단체, 일반시민 등은 각자 태극기를 들고 신흥고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날의 뜨거운 함성과 태극기 물결을 재현했다.

만세 행렬이 풍남문 광장에 도착한 후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기념사와 함께 2부의 막이 오르고, 애국지사 후손과 학생대표가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다.

또한 △남원시립국악단 명창의 판소리 공연 △창작극회의 3·1만세 뮤지컬 갈라쇼 등도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 등을 포함한 3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큰 울림을 주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코끼리유치원 원생들의 3.1절 노래와 만세삼창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교건 광복회 전주시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스 깊이 되새기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전주지역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는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축제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 독립을 향한 그들의 염원을 되새기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전주 3·13 만세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달라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

올해 지원 대상 대폭 확대... 5월 16일까지 접수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인 9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는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시민 중심,
으뜸 정읍

2025 정읍 **벚꽃** 축제

2025. 4. 4. (금) ~ 6. (일) |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원

낭만 벚꽃, 낭만 정읍

4(금) 황가람 / 박상민 / 김용임
카르ديو / 정슬 / 선우혜경

5(토) 벚꽃 JAZZ

6(일) 벚꽃 BLUES

문의 | 정읍시청 관광과 063)539-5231~5235

정읍시